

# 겨울방학 결식 아동 급식 '빨간불'

## 자치구별 가맹점 수 천차만별 선택 폭 제한

### 업체 혜택 없어 참여 기피...인센티브 등 절실

겨울방학 결식아동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썬다림 카드 가맹점이 자치구 별로 천차만별이어서 아동급식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지자체는 적극 행정을 통해 가맹점 수를 확대해 방학 동안 결식아동들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겨울방학을 맞아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 가운데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이하 미취학,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충전형 급식카드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각 자치구는 겨울 방학 40일간(주말 제외) 점심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비 20만원을 충전해 준다.

썬다림 카드는 종이식권을 사용하는 아동들이 느끼는 심리적 위축감 해소와 아동급식사업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지자체 별 썬다림 카드 이용자는 ▲동구 547명 ▲서구 1,194명 ▲남구 1,636명 ▲북구 2,477명 ▲광산구 2,012명 등 총 7,866명이다.

가맹점 수는 ▲동구 80개소 ▲서구 282개소 ▲남구 185개소 ▲북구 403개소 ▲광산구 416개소 등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5개 구·동별 썬다림 카드 가맹점 수는 최대 20여 곳부터 아예 없는 지역도 있다. 실제 서구 상무 1·2동의 경우 등록된

업체는 중국집, 제과점 분식집 편의점 등 21곳에서 사용 가능한 반면, 양3동 관내 가맹점은 전무했다.

도·농 지역 간 편차도 컸다. 도심지인 광산구 운남동의 경우 등록 가맹점 수가 15곳인 반면, 광산구 삼도동과 임곡동은 단 1곳에 불과했다. 가맹점이 1~2곳에 불과한 지역의 경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제한 적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운영한다는 취지

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모양(12)은 "집 근처에서 썬다림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편의점뿐이다"면서 "친구는 집 근처에서 자장면부터 김밥까지 다양한 가맹점이 있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심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에 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희망 업체가 적다는 점이다. 또 신청을 하더라도 가격 등 지원금액 등이 맞지 않는 이유도 원인이다.

지자체가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하루 식비인 5,000원 선에 가격을 맞춰 주거나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겠다는 착한가게도 있지만 여전히 관심도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가맹점 등록 업체에게 인

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모씨(45)는 "썬다림 카드에 대한 관심도는 극과 극이다"면서 "현재 참여 업체에 제공되는 혜택은 아예 없다. 업체의 적극 참여를 위해 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신청을 돌려할 수는 없다"면서 "집 주변에 가맹점이 없어 밥을 먹기 위해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것은 아동들에게 쉽지 않다. 아들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고 이태석 신부 위령기도회

아프리카 수단에서 교육과 의료봉사에 헌신하다 선종한 고 이태석 신부 10주기를 맞아 12일 오후 담양 천주교묘역에서 열린 위령기도회에서 현화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 15일 전남대서 '검찰개혁' 토크쇼

광주민변·교수연구자단체·시민 참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등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전남대학교 사회대 윤상원 기념홀에서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의 힘으로 철저한 검찰개혁,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작가·시민·여성단체들도 동참한다.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공수처법 통과 이후 검찰개혁의 전망·검찰권 오남용 사례·검찰개혁과 사립대학 개혁 및 지역 개혁의 관계·검찰개혁을 위한 시민의 참여 등을 논의한다.

조재건·김정호 변호사, 성한용(한겨레신문)·한상진(뉴스타파) 기자, 임종수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 범서우(청안대)·고영진(광주대) 교수가 출연한다. 지난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서명 운동에 앞장섰던 우희종 서울대 교수와 김호범 서울대 교수 등도 참석한다.

민변 광주지부 관계자는 "철저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논의하고 재벌·사립대학·지역개혁 등 사회개혁의 필수 조건인 검찰개혁이 가지는 의의를 성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 북구, 정보화 업무 4년 연속 최우수

광주시 '2019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 북구가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13일 광주시 북구(문인 청장)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최근 광주시 '2019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정보화 분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북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종합평가 1위를 차지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업무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분석 등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최상의 행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 영산강환경청, 환경지킴이 40명 채용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영산강·섬진강의 수질보전 감시활동을 위해 2020년 환경지킴이 40명을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지역 내 거주민 중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될 환경지킴이는 주 5일, 하루 8시간동안 환경오염행위 감시·계

도, 하천변 정화활동, 지역주민 교육·홍보, 하천변 퇴비 관리실제 조사 등이 주 업무다.

급여는 하루 기준 일급 6만8,720원이다. 실제 근무일에 맞춰 지급하는 정액 일비는 1만3,000원이다.

모집 공고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28일까지이며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종찬 기자

## 남구, 대외협력관실 1년여 만에 폐지

### '특정인 맞춤형 조직' 비판...타부서와 업무 통폐합 추진

광주 남구가 설치 1년여 만에 대외협력관실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직' 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2일 남구청에 따르면 대외협력관실 폐지하고 타부서와 업무 통폐합을 하는 조직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외협력관실은 김병내 구청장이 취임한 직후 광주 5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

하게 신설한 조직으로 인력만 15명에 달한다.

유관기관 협력과 기업 유치,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이 주된 업무다.

대외협력관실을 종괄하는 자리에는 김구청장이 과거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인연으로 선거 캠프에서 도움을 준 A씨가 임명됐다.

A씨 이외에도 캠프 출신 인사 3명도

직원으로 채용됐다.

하지만 A협력관과 캠프 출신 인사 2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A 협력관이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남구가 대외협력관실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외협력관실이 맡았던 임업동 수소충전소 건립 사업은 주민과 갈등만 빚다가 제자리걸음만 하는 등 업무 성과도 거리가 멀었다. /김종찬 기자

기업 유치는 단 1건도 이뤄내지 못했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나 청년 사업도 빛을 발하지 못했다.

남구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당시 '남북교류' 라는 명분으로 조직을 만들었지만 1년여 동안 운영해보니 역할이 크지 않았다"며 "측근 자리 만들기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 기획실 관계자는 "대외협력관실을 폐지한다기보다 중복된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주민 자치, 청소년행 등 종합적으로 조직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왜 단잠을 깨워?"**

○...술에 만취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 자고 있는 것을 깨운다며 다짜고짜 주민을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10일 밤 9시 20분께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깨운

B씨(46)를 폭행한 것.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술에 만취해 노상에서 잠을 잤다"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다"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시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감사 인사는 못할 망정 주먹질을 하고 싶더니"며 혀를 꼰꼰. /이나라 기자

###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 ① 평수 1,000평, 매매가 6억
- ② 평수 1,080평, 매매가 시세 10억

↳ **급매가 6억원**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 물건

- ① 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 ② 장성 야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 4억7천만원
- ③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 ④ 담양읍메타세쿼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010-6670-9800

### 상가매매 상무지구

- ① 치평동상가 6층 [80평]  
(유형주점,카페,노래방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가 4억5천만원  
- 매매가 2억5천만원
- ② 치평동상가 7층 [60평]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전망최고  
- 감정가2억8천만원  
- 급매 ⇒ 1억5천만원

■ 추천 물건

-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 매매가 8천만원  
(임대완료 -6300, 월44만원)
- ② 용봉동 원룸 매매 (툼15개, 주택1)  
- 매매가 6억9천만원

010-6670-9800

###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 기초이론+실전
- ② 중급 실전반  
① 중급이론+실전
- ③ 고급 특수반 모집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테디

**⑤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시 연20% 가능

010-4667-9820